

경제전망보고서

2020. 11

여 백

차 례

< 요약 >

I. 대내외 여건 점검	1
1. 세계경제	1
2. 국내경제	11
<주요 전망 전제치>	14
II. 거시경제 전망	15
1. 경제성장	15
2. 고용	29
3. 물가	33
4. 경상수지	37
III. 주요 현안점검	38
1. 최근 제조업 경기 현황 및 평가	38

요 약

- ①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금년중 -1.1%,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0%, 2.5% 수준을 나타낼 전망
- 국내경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양호한 투자 흐름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금번 코로나19 재확산,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IT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이연된 비IT부문 투자도 재개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용 건물의 부진도 완화될 전망
 - 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와 함께 상품교역도 회복되면서 개선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성장경로는 코로나19 전개양상과 백신·치료제 상용화 시기, 반도체 경기 향방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② 취업자수는 2020년중 20만명 감소한 후, 2021년, 2022년중 각각 13만명, 21만명 증가할 전망
-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고용부진이 지속되겠지만, 내년에는 대면서비스 수요회복, 제조업 업황개선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③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5%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0%, 1.5%로 점차 높아질 전망

○ 이는 국내경기가 개선되고 국제유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 주로 기인

④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0년, 2021년 및 2022년중 각각 650억 달러, 600억달러 및 580억달러로 전망

경제 전망

	2019	2020			2021 ^{e)}			2022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 GDP ¹⁾	2.0	-0.7	-1.4	-1.1	2.6	3.3	3.0	2.5
민간소비	1.7	-4.4	-4.1	-4.3	2.9	3.2	3.1	2.5
설비투자	-7.5	5.6	5.7	5.7	4.9	3.6	4.3	3.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3.3	4.2	3.8	3.8	4.0	3.9	3.7
건설투자	-2.5	1.7	-2.9	-0.7	-1.8	2.6	0.5	2.1
상품수출	0.5	-2.9	-0.4	-1.6	9.3	1.9	5.3	2.3
상품수입	-0.8	-0.9	-0.3	-0.6	7.5	4.5	5.9	3.2
▪ 취업자수 증감(만명) ¹⁾	30	-6	-35	-20	5	21	13	21
▪ 실업률	3.8	4.3	3.7	4.0	4.2	3.4	3.8	3.7
▪ 고용률	60.9	60.0	60.3	60.1	59.8	60.6	60.2	60.5
▪ 소비자물가 ¹⁾	0.4	0.6	0.5	0.5	0.7	1.2	1.0	1.5
식료품·에너지 제외	0.7	0.4	0.3	0.3	0.7	1.3	1.0	1.3
농산물·석유류 제외	0.9	0.6	0.7	0.7	0.8	1.2	1.0	1.3
▪ 경상수지(억달러)	600	192	458	650	260	340	600	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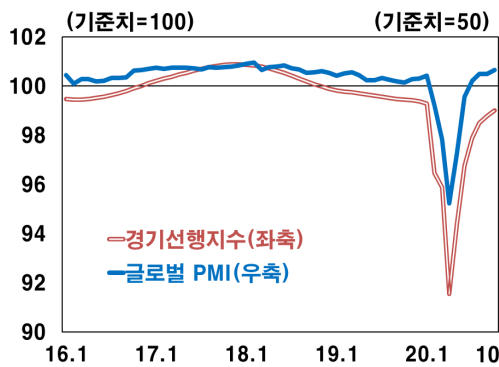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I. 대내외 여건 점검

1.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이후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할 전망
- 선진국의 소비회복과 중국의 투자확대로 개선되다가,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선세가 다소 약화
- 앞으로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백신 상용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

경기선행지수¹⁾ 및 글로벌 PMI



주: 1) OECD회원국과 6개 신흥국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공) 기준

자료: OECD, JP Morgan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전망시점	2019	2020 ^{e)}	2021 ^{e)}
IMF	20.10월	2.8	-4.4	5.2
(선진국)		1.7	-5.8	3.9
(신흥국)		3.7	-3.3	6.0
OECD	20. 9월	2.6	-4.5	5.0
Global Insight	20.11월	2.9	-4.3	4.6
5개 IB 평균	20.11월	3.0	-3.7	5.6

자료: 각 기관

□ 세계교역도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

- 서비스교역은 해외여행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상품교역은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

* 세계상품교역량(수입량 기준, 전년동월대비, %):

20.4월 -15.3 → 5월 -16.5 → 6월 -9.0 → 7월 -7.4 → 8월 -5.9 → 9월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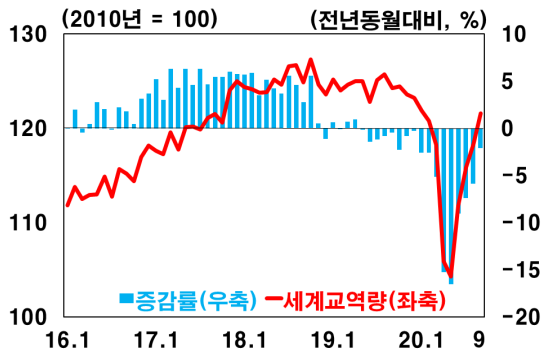
-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10월 제조업 수출주문 PMI가 전월에 이어 기준치를 상회

(20.7월 47.2 → 8월 49.9 → 9월 51.7 → 10월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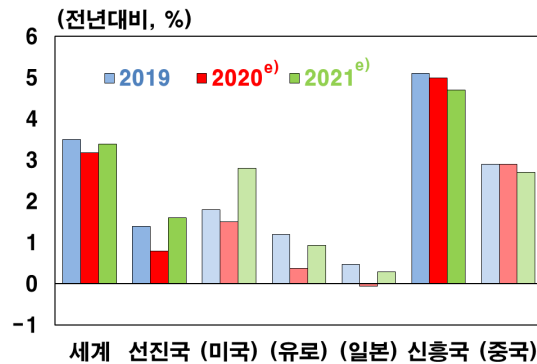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수요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오름세가 다소 확대될 전망

세계상품교역량¹⁾



주: 1) 상품수입물량 기준
자료: CPB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IMF(20.10월)

(미 국)

□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근 경제활동이 일부 제약

* 소매판매(9월 1.6% → 10월 0.3%)는 6개월 연속 증가

○ 향후 바이든 신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 강화, 바이든 신정부 출범 과정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하방리스크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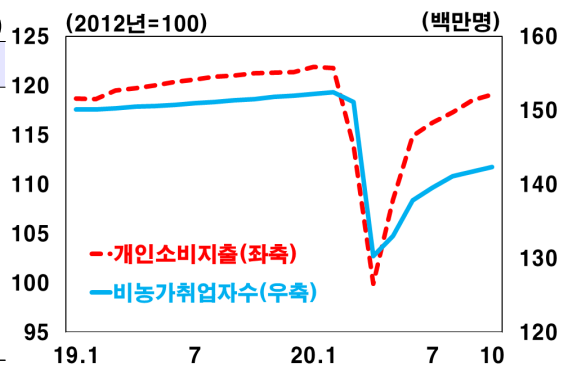
▶ 미국 성장률 전망(%)	2019	2020 ^{e)}	2021 ^{e)}
· IMF(20.10월)		-4.3	3.1
· OECD(20.9월)	2.2	-3.8	4.0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월대비, %)			
	20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4.2	0.7	-0.4	1.1
서비스 소비	1.3	1.1	0.8	0.6
소매 판매	1.1	1.4	1.6	0.3
실업률(%)	10.2	8.4	7.9	6.9
ISM제조업지수 ¹⁾	54.2	56.0	55.4	59.3
ISM비제조업지수 ¹⁾	58.1	56.9	57.8	56.6

주: 1) 기준치=50
 자료: 연준, 경제분석국, 인구통계국, 노동통계국, ISM

개인소비지출¹⁾ 및 취업자수



주: 1) 상품 및 서비스 소비
 자료: 경제분석국, 인구통계국

(유로지역)

□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다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

○ 9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이 약화

- 서비스업PMI가 기준치 아래에서 하락을 지속(8월 50.5 → 9월 48.0 → 10월 46.9 → 11월 41.3)하고 9월 소매판매도 감소 전환(-2.0%)

- 역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동 및 영업제한조치*를 시행

* 이동제한조치 강도(서유럽, Goldman Sachs ELI 지수, 기간중 평균)
8월 26.4 → 9월 22.5 → 10월 26.9 → 11.1~20일 42.8

○ 향후 ECB의 추가 완화정책,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으로 경기가 다시 개선흐름을 나타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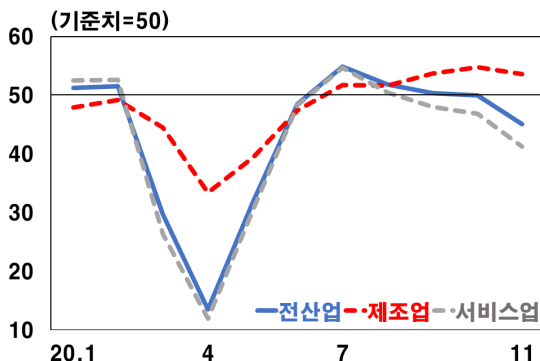
- 브렉시트 협상,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지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 유로지역 성장률 전망(%)	2019	2020 ^{e)}	2021 ^{e)}
· IMF(20.10월)	1.3	-8.3	5.2
· OECD(20.9월)		-7.9	5.1

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

	(전월대비, %)			
	20.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5.3	0.6	-0.4	..
서비스생산	4.5	2.0
소매판매	-1.7	4.2	-2.0	..
실업률(%)	8.1	8.3	8.3	..
제조업PMI ¹⁾²⁾	51.8	51.7	53.7	54.8 [53.6]
서비스PMI ¹⁾²⁾	54.7	50.5	48.0	46.9 [41.3]

구매관리자지수(PMI)



주: 1) 기준치=50 2) []내는 20.11월중
자료: EU통계청, IHS Markit

자료: IHS Markit

(일 본)

□ 일시적으로 개선세가 주춤하겠으나 내년부터는 미약하나마 개선흐름이 이어질 전망

○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확산으로 소비는 여전히 부진

- 10월 수출이 전기대비 기준으로 5개월 연속 증가
- 서비스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9월 소매판매가 감소

* 서비스 소비활동지수(20.1월=100) : 6월 81.6 → 9월 86.0

○ 향후 소비부진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점차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 3차 추경이 21.1/4분기중 집행될 예정(스가 총리 일본 각료회의에서 지시, 11.10일)

▶ 일본 성장률 전망(%)	2019	2020 ^{e)}	2021 ^{e)}
· IMF(20.10월)		-5.3	2.3
· OECD(20.9월)	0.7	-5.8	1.5

일본 주요 경제지표

(전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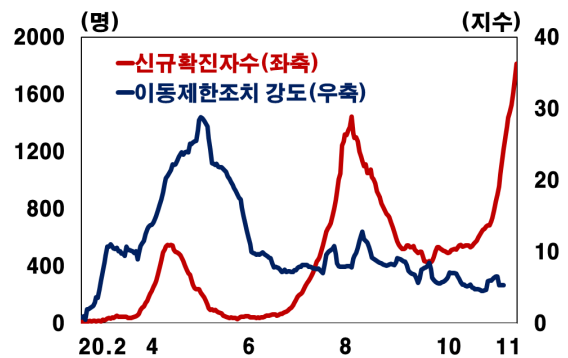
	20.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8.7	1.0	3.9	..
소매 판매	-3.4	4.6	-0.1	..
수출(통관)	6.1	4.9	3.5	2.6
민간기계수주액 ¹⁾	6.3	0.2	-4.4	..
제조업 PMI ²⁾³⁾	45.2	47.2	47.7	48.7 [48.3]
서비스업 PMI ²⁾³⁾	45.4	45.0	46.9	47.7 [46.7]

주: 1) 선박, 전력 제외 2) 기준치=50

3) [] 내는 20.11월중

자료: 경제산업성, 재무성, 내각부, IHS Markit

신규 확진자수¹⁾ 및 이동제한조치 강도¹⁾²⁾



주: 1) 7일 이동 평균

2) Effective Lockdown Index(ELI) 기준

자료: WHO, Goldman Sachs

(중 국)

□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인프라 및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개선되면서 회복흐름*을 지속

* 전년동기비 성장률: 2/4분기 3.2% → 3/4분기 4.9%

- 10월 소매판매와 고정투자(누계기준) 증가폭이 확대

- 향후 '쌍순환' 방식 성장전략 추진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중국 정부는 내수확대(내순환)와 함께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외순환) 하겠다고 발표

- 미·중 갈등 심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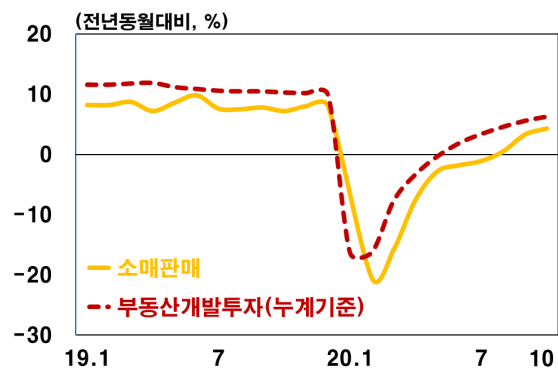
▶ 중국 성장률 전망(%)	2019	2020 ^{e)}	2021 ^{e)}
· IMF(20.10월)		1.9	8.2
· OECD(20.9월)	6.1	1.8	8.0

중국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0.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4.8	5.6	6.9	6.9
소매판매	-1.1	0.5	3.3	4.3
고정투자 ¹⁾	-1.6	-0.3	0.8	1.8
수출	7.2	9.5	9.9	11.4
제조업PMI ²⁾	51.1	51.0	51.5	51.4
서비스업PMI ²⁾³⁾	53.1	54.3	55.2	55.5

주: 1) 누계 기준 2) 기준치=50
3) 서비스업 상업활동지수 기준
자료: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소매판매 및 부동산투자



자료: 국가통계국

(신흥국)

□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개선흐름이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

○ 아세안5국은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개선속도는 완만할 전망

▪ 9월 들어 수출이 대중 수출(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중심으로 2월 이후 첫 증가 전환(+6.9%)

○ 인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봉쇄조치 완화,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

* 신규 확진자수: 9월 86,817명 → 11.1~22일중 43,577명(일평균)

▪ 9월 생산이 증가로 전환하고 10월 전산업PMI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

아세안5¹⁾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0.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²⁾	-7.4	-6.0	-2.5	..
소매판매	-8.6	-5.6
수출	-2.9	-2.5	6.9	..
(대중수출)	6.6	4.6	20.8	..
제조업PMI ³⁾	47.8	48.6	49.7	49.5

인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0.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10.8	-7.4	0.2	..
자동차판매	-18.6	-1.3	7.2	10.5
수출	-10.2	-12.7	6.0	-5.1
제조업PMI ¹⁾	46.0	52.0	56.8	58.9
전산업PMI ¹⁾	37.2	46.0	54.6	58.0

주: 1)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2) 인도네시아 제외

3) 기준치=50

자료: 각국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주: 1) 기준치=50

자료: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 브라질은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
 - 소비가 호조를 지속하고 생산이 9월중 증가 전환하였으며, 10월 제조업PMI(66.7)도 높은 수준을 지속
 - 4월부터 연말까지 저소득층 약 6,500만명을 대상으로 매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향후 경기흐름은 동 조치의 연장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
- 러시아는 저유가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개선세가 주춤할 전망
 - * 10월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종전 최고치(5월초 11,000명대)를 지속적으로 경신(11.1~22일중 22,243명)
 - 원유감산 등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9월 이후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소비지표도 악화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20.7월	8월	9월	10월	20.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2.7	-2.5	3.4	..	산업생산	-5.9	-4.2	-3.6	-5.9
소매판매	5.5	6.2	7.3	..	소매판매	-1.9	-2.7	-3.0	-2.4
수출	-3.5	-11.1	-10.0	-8.8	수출	-26.9	-32.5	-14.1	..
제조업PMI ¹⁾	58.2	64.7	64.9	66.7	제조업PMI ¹⁾	48.4	51.1	48.9	46.9
서비스업PMI ¹⁾	42.5	49.5	50.4	52.3	전산업PMI ¹⁾	56.8	57.3	53.7	47.1

주: 1) 기준치=50
 자료: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국제유가)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최근 배럴당 40달러대 중반 수준으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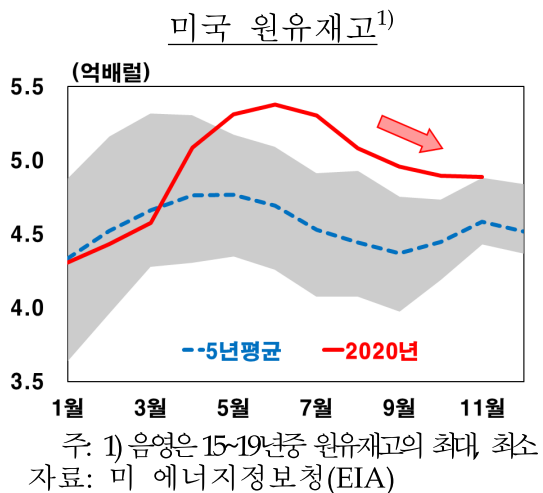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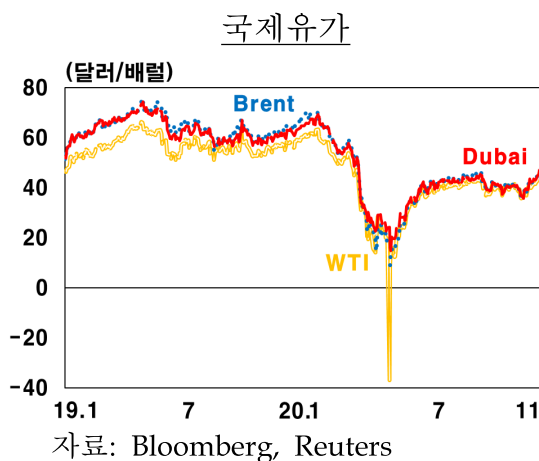
○ 코로나19 재확산, 리비아 원유생산 정상화* 등으로 한때 30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OPEC+의 감산 연장 가능성**,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미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오름세로 전환

* 일일 원유 생산량을 9월 15만 배럴에서 내전 휴전협정(10.23일) 이후 11월초 100만 배럴로 확대

** 최근 유럽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예정되어 있던 감산규모 축소 계획(770만배럴/일 → 580만배럴/일)을 연기할 가능성(Goldman Sachs, JP Morgan)

*** 시추활동 위축, 허리케인에 따른 걸프만 생산 차질 등으로 원유생산량이 더디게 회복된 데 주로 기인



□ 향후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회복, OPEC+ 생산량 조절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원유생산이 셰일산업 위축*, 바이든 신정부의 친환경 기조** 등으로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상승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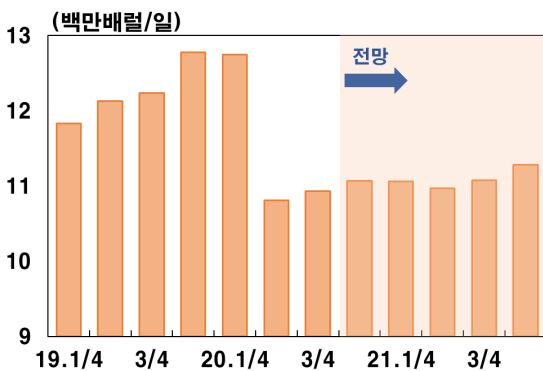
* 미 셰일업체들은 손익분기점(50달러 내외)을 하회하는 유가 등으로 원유 생산과 신규 유정 개발을 위한 시추활동을 대폭 축소

** 생태계 보호를 위한 영구 시추제한 지역 재지정(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중 해제),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환경규제 강화 등

○ 반면 이란의 수출 재개 가능성*은 하락요인으로 작용

* 이란(OPEC 3위 산유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18.5월) 이후 수출 제재로 생산량이 급감하였으나 바이든 신정부와의 핵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

미국 원유생산



자료: 미 에너지정보청(EIA)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¹⁾

(달러/배럴)

	2020		2021			2022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EIA (11.10일)	40.1	40.6	44.5	48.5	46.6	..
IHS (11.16일)	41.1	41.0	43.7	50.0	46.9	55.9
OEF (11.10일)	41.5	41.1	44.5	51.7	48.0	55.2

주: 1) 브렌트유 기준, ()내는 전망일
자료: 각 기관

2. 국내경제

(재정지출)

- 금년중 재정지출은 17.0% 늘어 지난해(12.0%)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 추경을 네 차례 편성(총 66.8조원 규모)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한 데 주로 기인
 - 2021년 재정지출은 네 차례 추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0.2% 늘어나고, 2022년에는 7.7%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재정지출 전망¹⁾

	(조원, %)							
	2019 연간	2020		2021 ^{e)}		2022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 통합재정지출 (증감률 ²⁾)	455.9 (12.0)	300.7 (11.2)	232.8 (25.6)	533.5 (17.0)	320.6 (6.6)	213.8 (-8.2)	534.4 (0.2)	575.4 (7.7)
- 경상지출	387.1	261.1	209.8	470.9	280.0	186.8	466.8	505.3
- 자본지출	49.6	21.3	12.1	33.4	21.6	14.4	36.0	37.4
- 순 용 자	19.2	18.3	11.0	29.3	19.0	12.6	31.6	32.8

주: 1) 통합재정 기준 2) 전년동기대비 기준
 3) 2021년 및 2022년은 정부예산안,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추정
 자료: 기획재정부, 자체 추정

- 금년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규모가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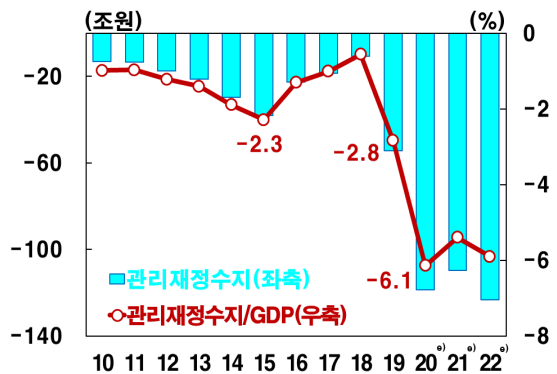
- 2021~2022년에도 큰 폭의 적자규모를 유지

주요 분야별 총지출

구 분	(조원, %)		
	2020 ¹⁾	2021 ²⁾	증감(률)
· 보건복지고용	197.8	199.9	2.1 (1.1)
· 일반지방행정	94.0	86.5	-7.5 (-8.0)
·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35.5	29.1	-6.4 (-18.0)
· R&D	24.3	27.2	2.9 (11.9)
· SOC	22.9	26.0	3.1 (13.5)
총지출	554.7	555.8	1.1 (0.2)

주: 1) 4차 추경예산 기준 2) 2021년 정부예산안 기준
 3) 2020년은 4차 추경예산, 2021년은 정부예산안, 2022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관리재정수지³⁾



(부동산시장)

□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다가 10월 중순 이후 상승폭이 다시 확대

* 6.17일·7.10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8.4일 수도권 공급대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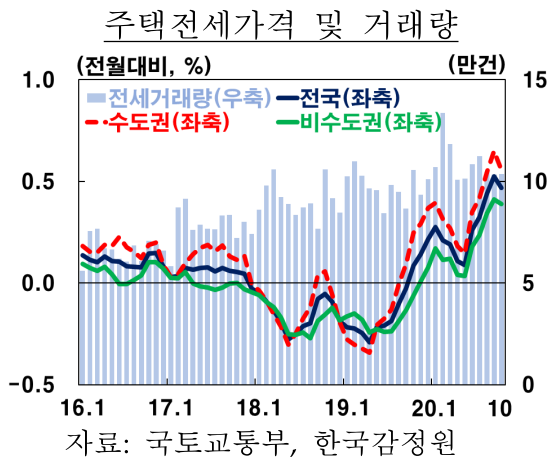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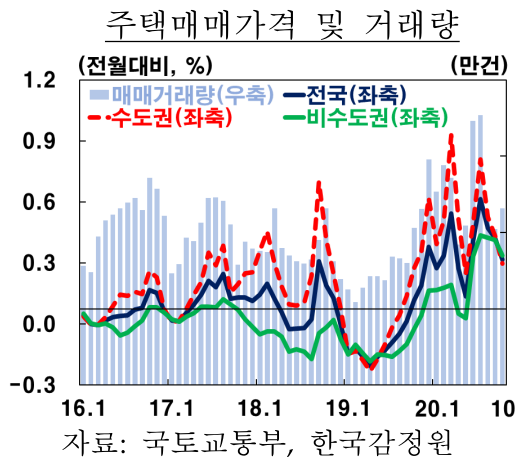
○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김포, 부산 등 비규제지역(11.19일 규제지역으로 지정)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주로 기인

아파트매매가격	월간동향(전월대비, %)				주간동향(전주대비, %)			
	20.7월	8월	9월	10월	10.1주	3주	11.1주	3주
▶ 전국	0.9	0.6	0.6	0.4	0.08	0.12	0.17	0.25
- 수도권	1.2	0.7	0.6	0.3	0.06	0.09	0.15	0.18
- 비수도권	0.6	0.6	0.6	0.4	0.10	0.14	0.19	0.32

자료: 한국감정원

□ 주택전세가격은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상승폭이 확대

*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는 10월 119.1로 15.11월(122.1) 이후 최고치를 기록(100초과시 수요 > 공급, 자료: 한국감정원)



□ 내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입주물량 감소,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부동산 세제강화의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상
승폭은 점차 둔화될 전망

○ 내년 이후 입주물량은 금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만호, 자료: 국토교통부 8.4일 보도자료)
2020년^{e)} 19.3 → 2021년^{e)} 13.4 → 2022년^{e)}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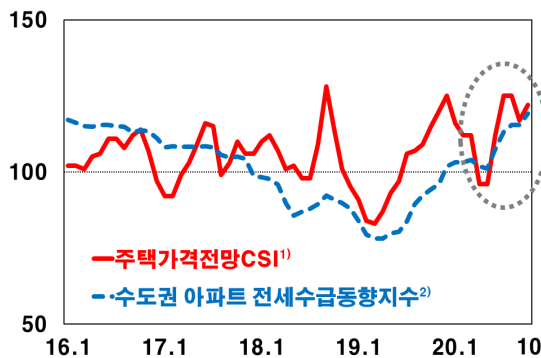
○ 보유세율 인상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정부 공급주택의 사전청약**이 시작될 계획

* 금년 11.3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60~70% 수준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비율
을 2030년까지 90%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

** 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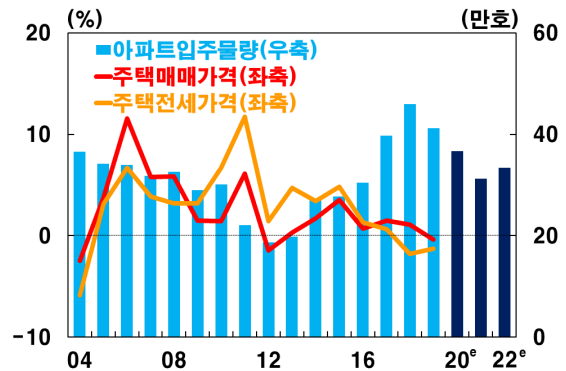
□ 주택전세가격은 수급불균형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오름
세를 지속할 전망

주택시장 심리지표



주: 1) 100초과시 상승 > 하락
2) 100초과시 수요 > 공급
자료: 한국감정원, 한국은행

주택가격 및 입주물량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114, 자체
추정

<주요 전망 전제치>

(코로나19 사태의 전개양상 시나리오)

-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올 겨울중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내년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
 - 이동제한조치는 내년 봄부터 다시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내년 하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국내)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올 겨울중 지속되고 이후에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제

- 2020년 및 2021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전개양상과 최근의 주요국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4.0%, 4.8%로 전제
 - 2022년은 3.7% 성장
- 세계교역 신장률은 각각 -10.1%, 7.0%로 전제
 - 2022년은 4.5% 증가
- 원유도입단가(기간 평균)는 각각 배럴당 42달러, 49달러로 전제
 - 2022년은 58달러 수준

전망 전제치

	2019	2020 ^{e)}	2021 ^{e)}			2022 ^{e)}
			상반	하반	연간	
▪ 세계경제 성장률(%) ¹⁾	2.8	-4.0	5.3	4.3	4.8	3.7
미 국	2.2	-3.7	3.4	3.3	3.4	2.9
유 로	1.3	-7.1	4.4	2.8	3.5	3.0
일 본	0.7	-5.4	1.6	2.5	2.1	1.6
중 국	6.1	2.0	12.2	4.8	8.1	5.3
▪ 세계교역 신장률(%) ¹⁾	1.0	-10.1	7.2	6.7	7.0	4.5
▪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 ²⁾	65	42	46	53	49	58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기간 평균, CIF 기준, 원유도입비중(2019년 기준): 중동산 70%, 여타 30%

- 가계의 경제활동이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코로나 확산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소비심리의 빠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퓨리서치센터의 서베이(20.9월) 결과 우리나라의 조사대상자중 감염병 확산을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89%로 일본(88%)과 함께 주요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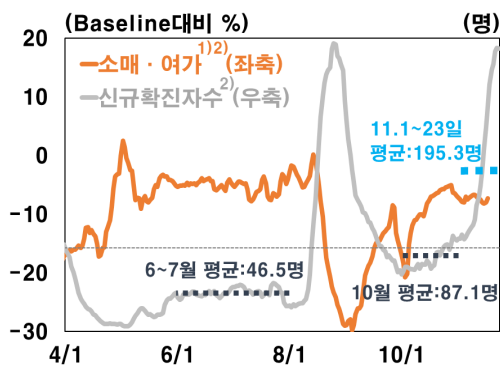
□ 부문별로는 재화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대면서비스와 국외소비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

- 감염에 대한 우려로 자발적 거리두기(voluntary social distancing)가 일상화되면서 대면서비스 관련 소비 회복이 제약
- 거주자 국외소비도 국가간 이동 제한, 해외여행 기피 등으로 크게 위축

(20.1월 대비 차이)	20.3월	6월	9월	10월
▶ 소비지출전망 CSI	-17	-17	-18	-10
- 여행비지출전망 CSI	-25	-28	-3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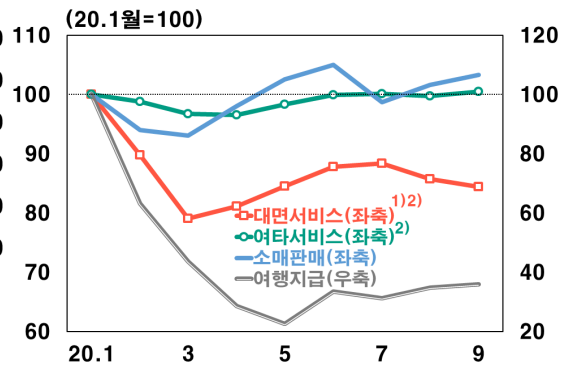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이동성지표 및 확진자 수



주: 1) 소매·여가 관련 장소의 방문 횟수와 체류시간을 코로나 이전(baseline)과 비교
2) 7일 이동평균 기준
자료: Google Mobility, 질병관리청

소비관련 지표 추이



주: 1)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운수·창고 포함
2) 서비스생산지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한편 정부 지원정책, 코로나19 이후 저축 증대 등은 향후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내년중 소득 및 소비 지원정책이 금년에 이어 확대 시행될 예정

▶ 주요 정부정책 규모(조원) (2020→2021)	<u>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u> 0.3 → 1.3	<u>4대 바우처·쿠폰</u> 0.2 → 0.5	<u>고용유지 지원금</u> 0.03 → 1.2	<u>청년추가 고용장려금</u> 1.0 → 1.2
주: 본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또한 대면서비스 제약 등에 따른 저축 증가*도 향후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

* 금년 1/4~3/4분기중 저축률(가계동향조사 흑자율, 분기평균 기준)이 전년 동기대비 4.5%p 상승

⇒ 민간소비는 금년중 4.3% 감소한 후 내년에는 3.1% 증가할 전망

○ 2022년에는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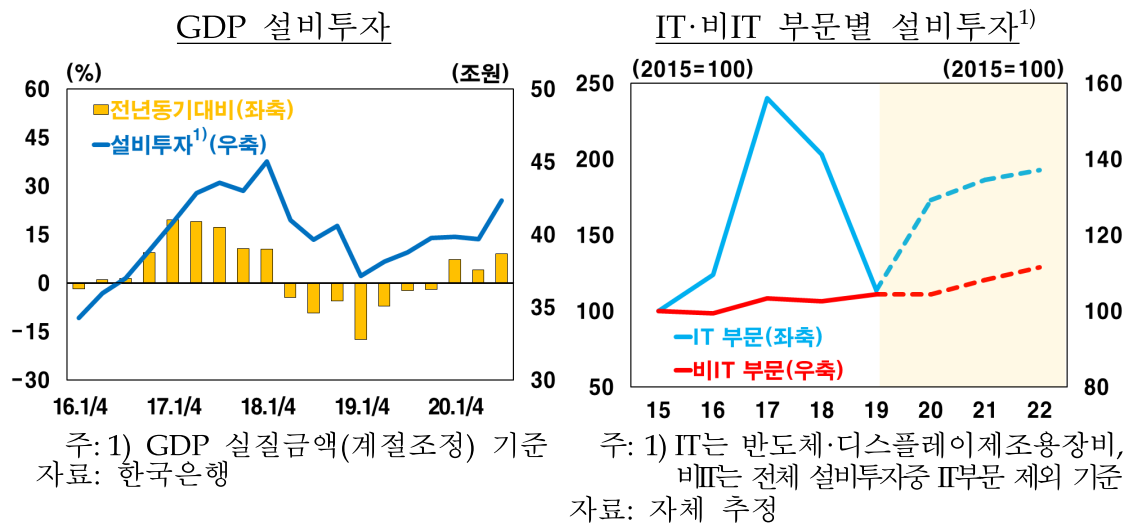
민간소비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2021 ^{e)}		2022 ^{e)}	
	연간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1.7	-4.4	-4.1	-4.3	2.9	3.2	3.1	2.5

(2)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금년 3/4분기중 IT부문이 양호한 가운데 비IT부문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회복되는 모습
- 향후 설비투자는 IT부문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이연된 비IT부문 투자도 재개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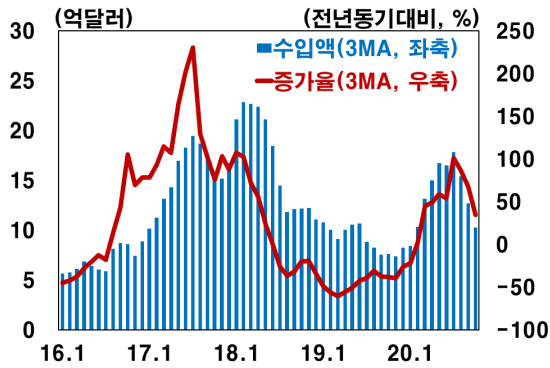


- IT부문은 향후 반도체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견조한 투자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반도체는 차세대 D램으로의 전환(DDR4 → DDR5), 파운드리 증설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
- 디스플레이는 최근 수익성 개선*으로 투자여력이 양호해지면서 OLED 전환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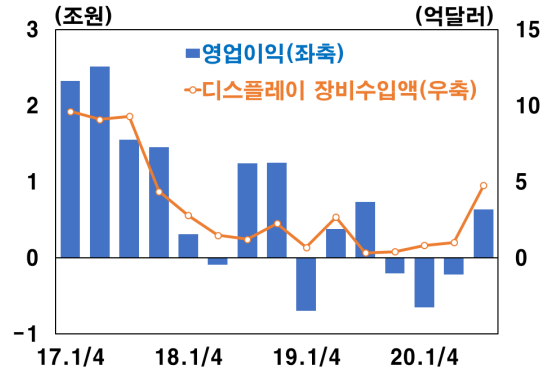
* 최근 TV판매 증가, 중국업체의 공급조절 등으로 LCD패널 가격이 상승 (55인치 기준, 6월 110달러 → 8월 128달러 → 10월 155달러)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자료: 관세청

국내 디스플레이업체 영업이익과 장비수입액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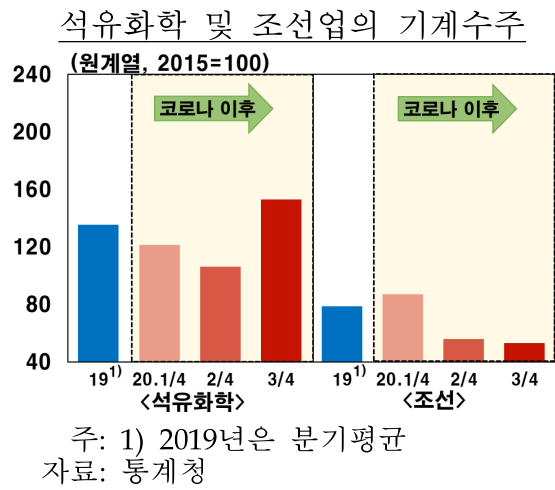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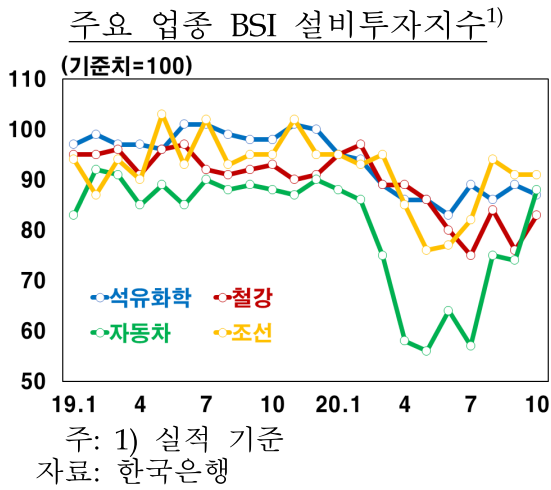
□ 비IT부문은 글로벌 경기부진이 완화되면서 신성장 부문 육성, 유지·보수 등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

- 자동차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관련 투자를 지속
- 철강은 향후 건설, 자동차 등의 전방산업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회복, 친환경 설비증설 등에 힘입어 투자가 증가할 전망
- 석유화학은 코로나19 이후 실내활동 관련 가전·인테리어용 제품의 수요 증가 등으로 기존에 계획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조선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설비를 감축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확대가 어려울 전망

▶ 조선업 생산능력 및 생산지수(전년동기대비, %)

	19.3/4	4/4	20.1/4	2/4	3/4
- 생산능력지수	-12.9	-14.4	-10.1	-11.9	-13.3
- 생산 지 수	22.8	15.4	12.3	3.3	10.6

자료: 통계청



⇒ 설비투자는 금년중 5.7%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도 4.3% 늘어날 전망

○ 2022년에는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설비투자 전망

(전년동기대비, %)

연간	2019		2020		2021 ^{e)}		2022 ^{e)}	
	상반	하반 ^{e)}	상반	하반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7.5	5.6	5.7	5.7	4.9	3.6	4.3	3.2

(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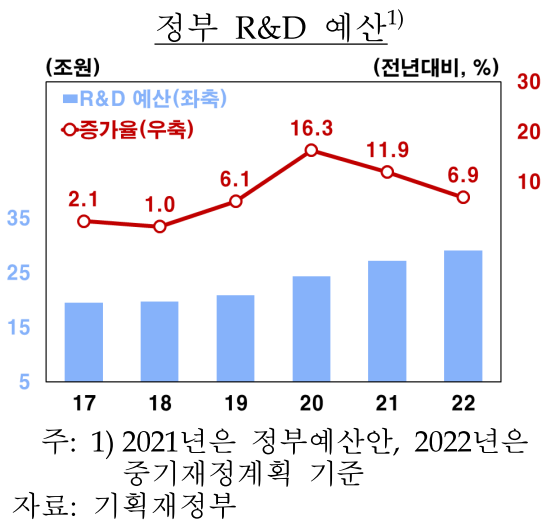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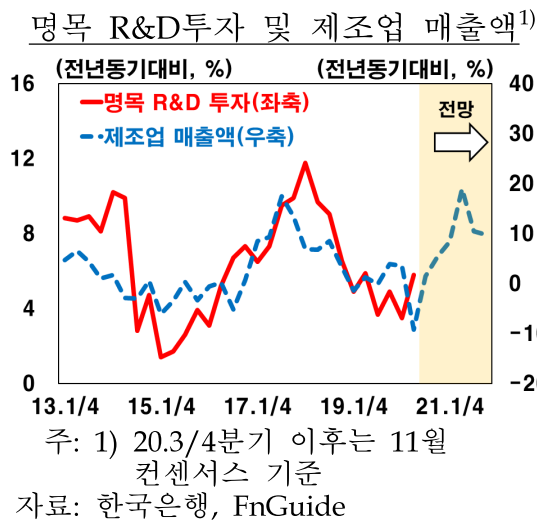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R&D투자는 내년중 기업매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비대면 수요 확대, 정부 R&D 예산 증가*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감염병 대응,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21년 27.2조원, 전년대비 11.9% 증가)

○ 기타지식생산물투자는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정부도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공공정보 시스템을 데이터센터로 통합 운영할 계획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금년과 내년에 각각 3.8%, 3.9% 증가할 전망

○ 2022년에는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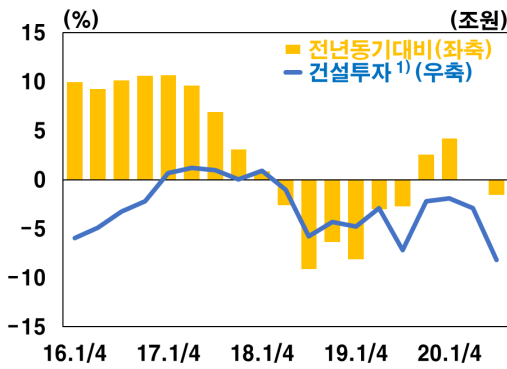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2021 ^{e)}		2022 ^{e)}		
연간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3.0	3.3	4.2	3.8	3.8	4.0	3.9	3.7

(4)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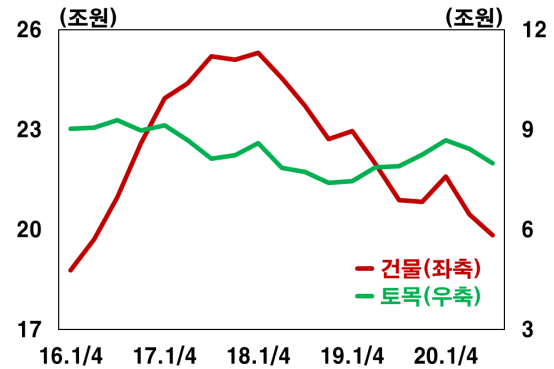
- 건설투자는 금년 3/4분기중 전기대비 큰 폭 감소
 - 건물이 장마·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토목도 SOC 예산 집행 축소 등으로 크게 감소
- 향후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용 건물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내년중 증가로 전환될 전망

GDP 건설투자



주: 1) GDP 실질금액(계절조정)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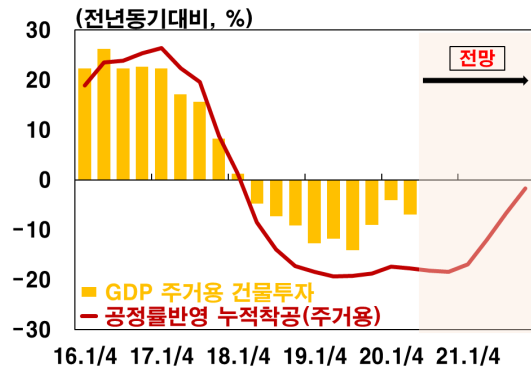
공종별 건설기성¹)



주: 1) 불변 건설기성액(계절조정)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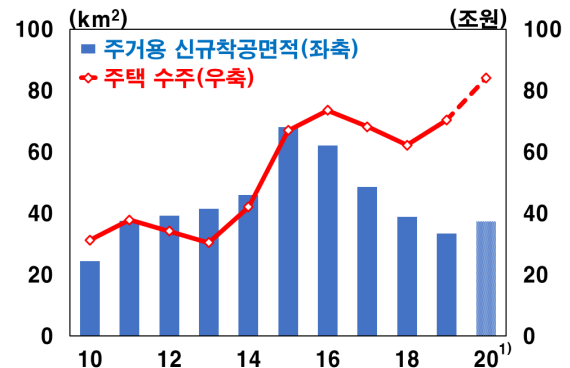
- 주거용 건물은 내년에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
 - 주택공사물량은 2018년 이후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선행지표(주택착공, 수주)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
 - 2022년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이 주거용 건물 회복에 기여

주거용 건물투자와 누적착공면적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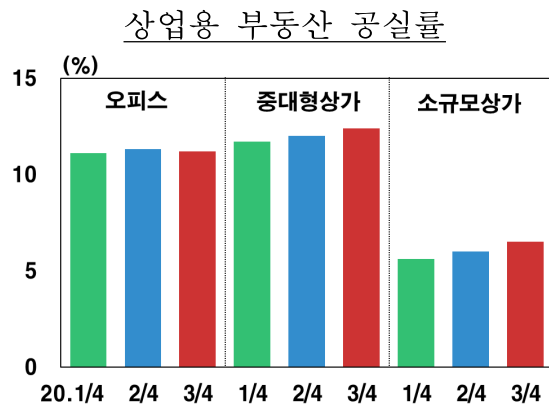
주: 1) 공정률을 적용한 누적합산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자체 추정

주거용 착공면적과 주택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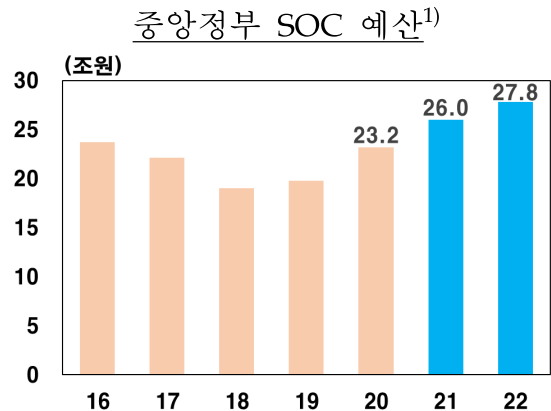


주: 1) 2020년은 1~9월 실적을 이용하여 자체 추정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체 추정

-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이 부진하겠으나 공업용 건물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상업용 건물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영업 업황 악화에 따른 공실률 상승 등으로 부진이 예상
 - 공업용 건물은 반도체, 의약 등 일부 업종의 공장 증설이 회복 요인으로 작용
- 토목은 정부의 SOC 예산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
 - 공공과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도 증가요인으로 작용



자료: 한국감정원



주: 1) 2021년은 정부 예산안, 2022년은 중기재정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 건설투자는 금년중 0.7% 감소하겠으나 내년중 0.5% 증가할 전망
- 2022년에는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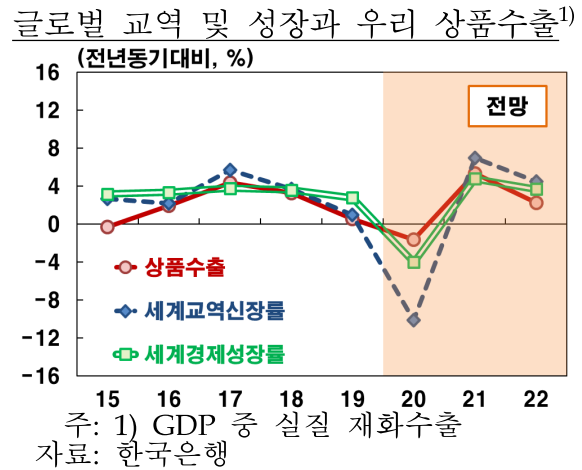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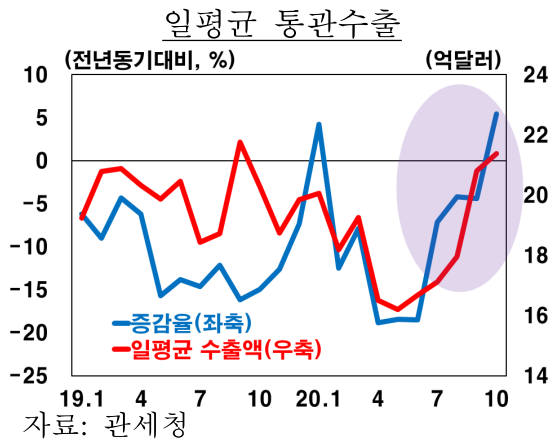
건설투자 전망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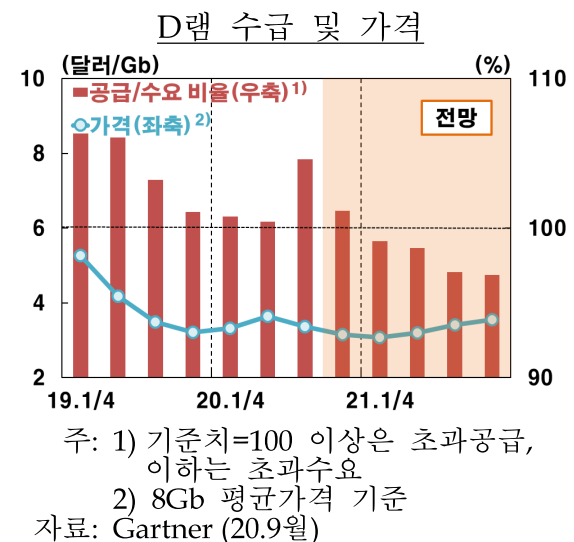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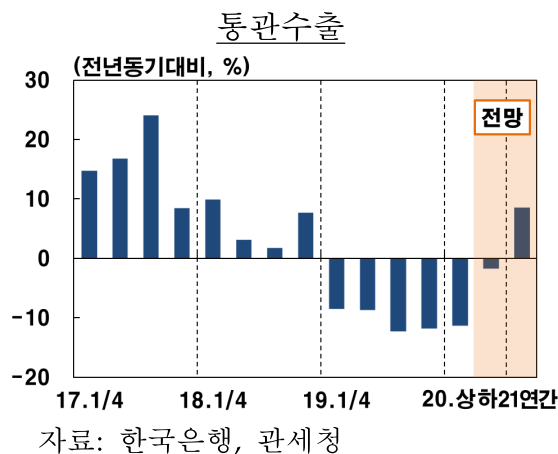
2019		2020		2021 ^{e)}		2022 ^{e)}	
연간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2.5	1.7	-2.9	-0.7	-1.8	2.6	0.5	2.1

(5) 상품수출

- 상품수출(GDP 실질 재화수출)은 금년 3/4분기중 감소폭(전년동기 대비)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4/4분기에도 회복흐름이 이어질 전망
- 내년중 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금액기준(통관수출)으로도 내년중 증가할 전망
 - (IT)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증가폭이 확대되고 디스플레이 패널·휴대폰도 5G 스마트폰 확산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는 모바일, 서버용 수요 회복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면서 증가폭 확대
 -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수요 증가와 5G 통신장비 수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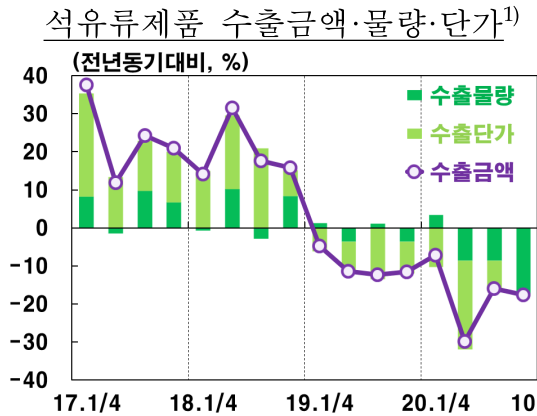


○ (비IT) 선박은 2020년중 인도가 지연된 해양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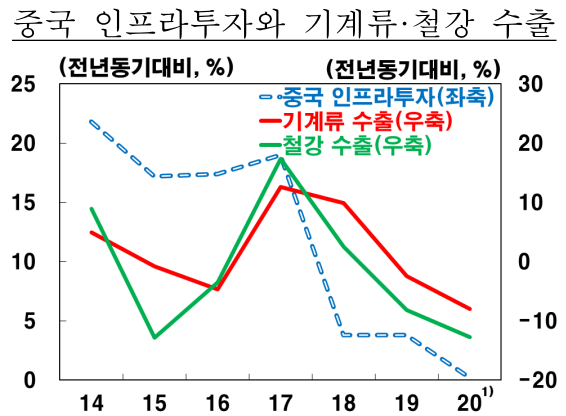
석유류(화공품·석유제품)는 수요·단가가 모두 회복되면서 증가하고 기계류·철강도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전방산업 수요 회복 등으로 개선

▪ 다만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이동제한조치 등이 강화될 경우 비IT 수출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

○ (무통관수출) 5G 스마트폰, 가전 등의 견조한 수요로 휴대폰·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증가



주: 1) 석유류제품 수출금액을 수출 중량(톤)으로 나누어 산출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주: 1) 20.9월까지 누적
자료: 관세청, CEIC

⇒ 상품수출은 금년중 1.6% 감소한 후 내년에는 5.3% 증가할 전망

○ 2022년에는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상품수출¹⁾ 전망

2019		2020		2021 ^{e)}		2022 ^{e)}		
연간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0.5	-2.9	-0.4	-1.6	9.3	1.9	5.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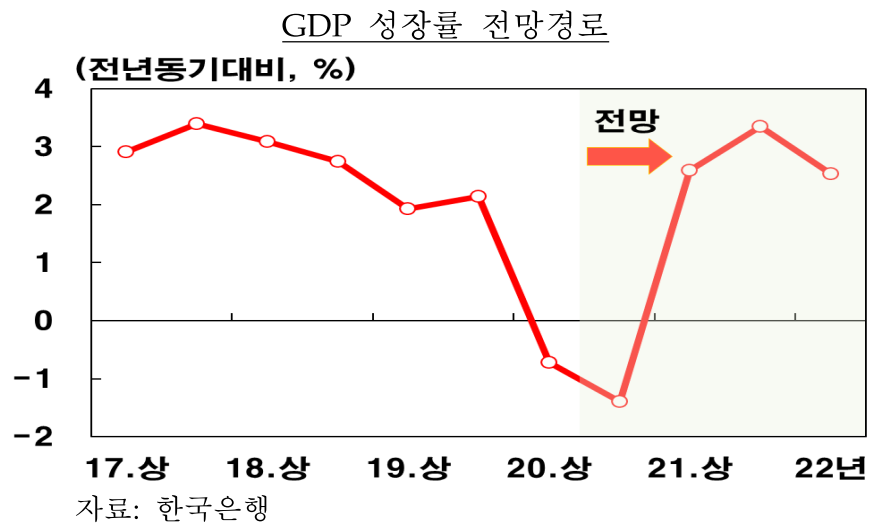
주: 1) GDP 중 실질 재화수출

(6) GDP 성장률

□ 경제성장률은 금년중 -1.1%,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0%, 2.5% 수준을 나타낼 전망

	2017	2018	2019	2020 ^{e)}	2021 ^{e)}	2022 ^{e)}
▶ 경제성장률(전년대비, %)	3.2	2.9	2.0	-1.1	3.0	2.5

○ 국내경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양호한 투자 흐름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2021 ^{e)}		2022 ^{e)}	
	연간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2.0	-0.7	-1.4	-1.1	2.6	3.3	3.0	2.5
민간소비	1.7	-4.4	-4.1	-4.3	2.9	3.2	3.1	2.5
설비투자	-7.5	5.6	5.7	5.7	4.9	3.6	4.3	3.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3.3	4.2	3.8	3.8	4.0	3.9	3.7
건설투자	-2.5	1.7	-2.9	-0.7	-1.8	2.6	0.5	2.1
상품수출	0.5	-2.9	-0.4	-1.6	9.3	1.9	5.3	2.3
상품수입	-0.8	-0.9	-0.3	-0.6	7.5	4.5	5.9	3.2

□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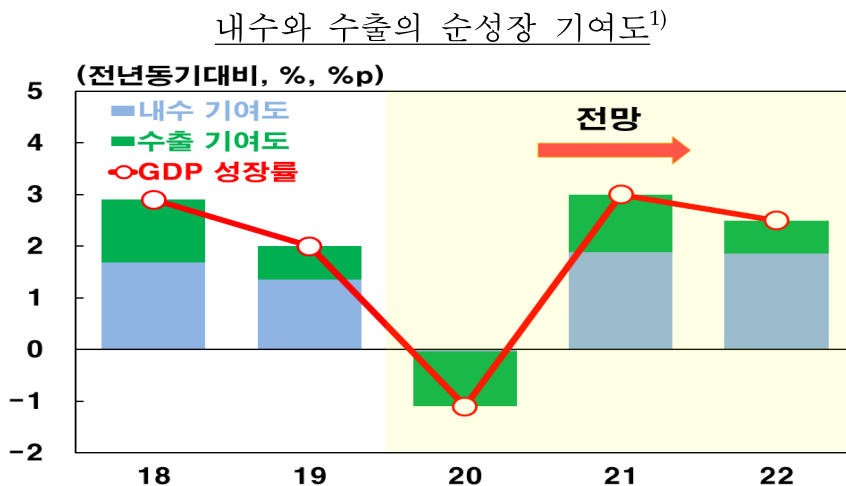
내수 기여도는 금년중 크게 축소된 후 내년중 큰 폭으로 반등하고,
수출 기여도는 금년중 큰 폭의 마이너스에서 내년중 증가로
전환될 전망

(%,%p)	2018	2019	2020 ^{e)}	2021 ^{e)}	2022 ^{e)}
▶ GDP	2.9	2.0	-1.1	3.0	2.5
내수	1.7	1.4	0.0	1.9	1.9
수출	1.2	0.6	-1.1	1.1	0.6

□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 <참고> '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참조

- (상방리스크)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조기 상용화, 국내외에서의 추가적 경기부양정책,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 (하방리스크)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가속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주: 1) I/O표를 이용하여 세부 지출항목별로 수입유발 효과를 차감하여 산

자료: 한국은행

<참고>

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이동제한조치 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구 분	세 계	국 내
낙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이 올 겨울중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내년 초반 이후 점차 진정 이동제한조치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2021년 상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전제
기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이 올 겨울중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내년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 이동제한조치는 내년 봄부터 다시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내년 하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올 겨울중 지속되고 이후에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제
비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이 올 겨울중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2022년 중반 이후에나 점차 진정 이동제한조치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는 2022년 말경에나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디게 진정될 것으로 전제

(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세 계	국 내
낙 관	(2021년) +6.1, (2022년) +4.6	(2021년) +3.8, (2022년) +3.1
기 본	(2021년) +4.8, (2022년) +3.7	(2021년) +3.0, (2022년) +2.5
비 관	(2021년) +3.4, (2022년) +2.8	(2021년) +2.2, (2022년) +1.9

2. 고용

(1) 동향

□ 취업자수는 감염병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9월 이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

*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개인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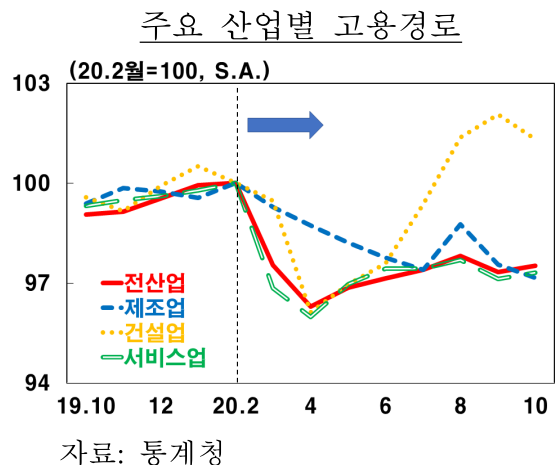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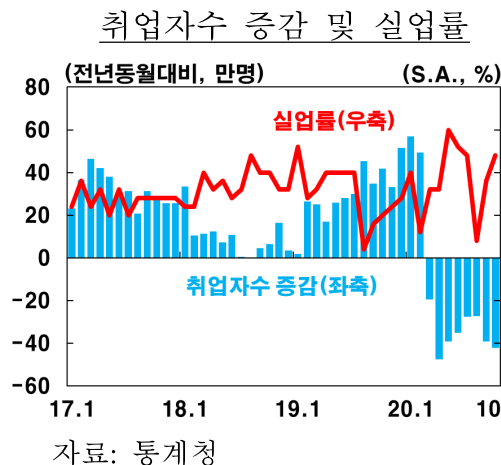
○ 제조업 고용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반면 건설업 고용은 9월부터 증가세

○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고용 증가폭이 크게 축소*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상용직 고용은 10월 들어 감소 전환

(전년동월대비, 만명)	20.4월(저점)	8월	9월	10월	
취업자수 증감(전체)	-47.6	-27.4	-39.2	-42.1	
산업별	▶ 제조업	-4.4	-5.0	-6.8	-9.8
	▶ 건설업	-5.9	-0.6	5.5	3.7
	▶ 서비스업	-44.4	-21.5	-38.2	-38.3
종사상지위별	▶ 상용직	40.0	28.2	9.6	1.4
	▶ 임시일용직	-78.3	-39.5	-34.4	-32.0
	▶ 비임금근로자	-9.4	-16.1	-14.3	-11.5

□ 10월중 실업률(S.A.)은 4.2%로 전월(3.9%)대비 상승



(2) 전 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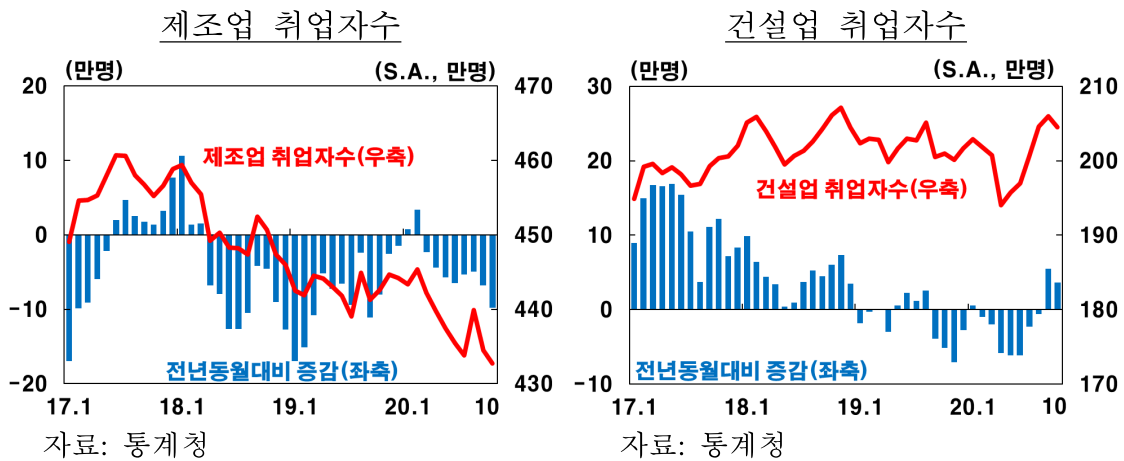
□ 취업자수는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분간 고용부진이 지속 되겠지만, 내년에는 대면서비스 수요회복, 제조업 업황개선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제조업 고용은 대내외 수요회복에 따른 업황개선*으로 감소폭이 축소될 전망

* 글로벌 수요회복으로 IT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IT부문도 부진 완화 예상

○ 건설업 고용은 정부의 SOC 투자 확대*, 주거용 건물 공사물량 감소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예상

* SOC 예산안(본예산 기준): 2020년 23.2조원 → 2021년 26.0조원(+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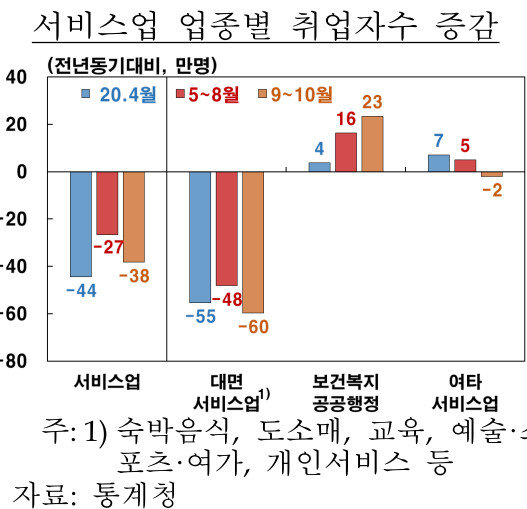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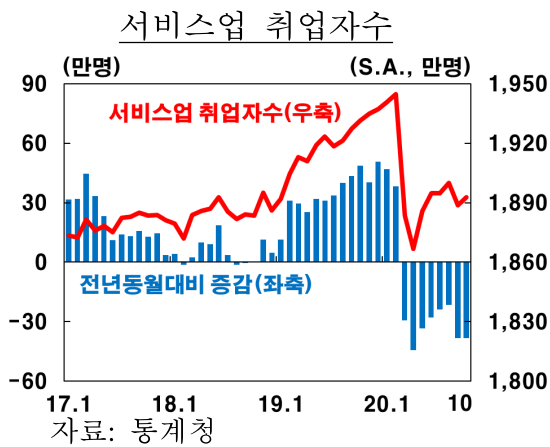
○ 서비스업 고용은 대면서비스 수요회복으로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일자리 예산증액*, 고용대책(직접일자리 102.8만개)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일자리 예산(본예산 기준): 2020년 25.5조원 → 2021년 30.6조원(+20.0%)

- 다만 코로나19 전개양상, 고용유지지원 종료*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금년말~내년초 상당수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이 종료 예정



- 한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점은 향후 고용회복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

(전년대비 증감, 만명)	2019년	2020년 ^{e)}	2021년 ^{e)}	2022년 ^{e)}
▶생산연령인구(15~64세, A)	-5.6	-23.1	-22.5	-24.6
▶65세 이상(B)	31.3	44.1	41.2	43.8
▶15세 이상 인구(A+B)	25.7	20.9	18.6	19.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 취업자수는 금년중 20만명 감소하고, 내년에는 13만명 증가할 전망

- 금년과 내년중 실업률은 각각 4.0% 및 3.8%, 고용률은 각각 60.1% 및 60.2%로 전망

- 2022년에는 21만명 증가할 전망

	2019		2020		2021 ^{e)}			2022 ^{e)}
	연간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취업자수 증감 ¹⁾	30	-6	-35	-20	5	21	13	21
실업률	3.8	4.3	3.7	4.0	4.2	3.4	3.8	3.7
(S.A.)	-	4.0	4.2	-	3.9	3.7	-	
고용률 ²⁾	60.9	60.0	60.3	60.1	59.8	60.6	60.2	60.5
	[66.8]	[65.9]	[65.9]	[65.9]	[65.6]	[66.1]	[65.8]	[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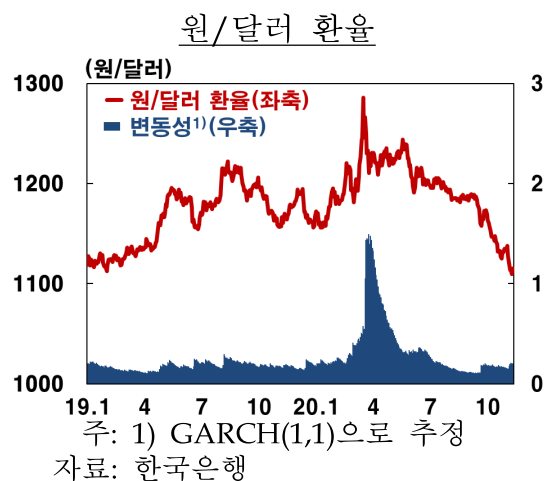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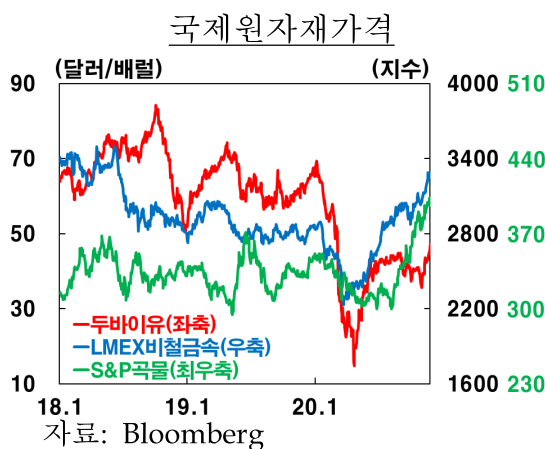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15세 이상, [] 내는 15~64세(OECD기준)

3. 물 가

(1) 여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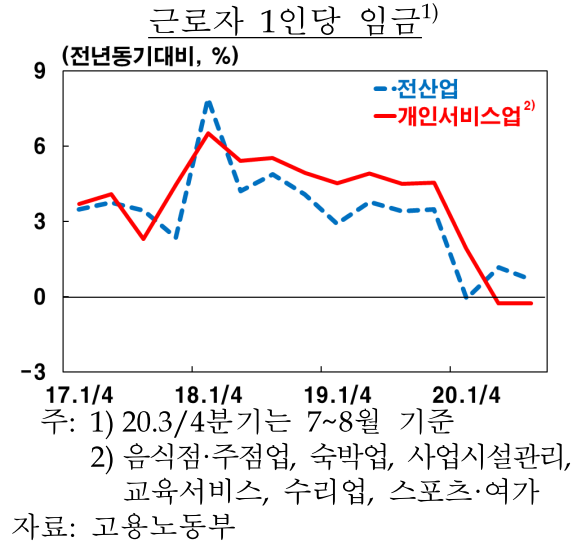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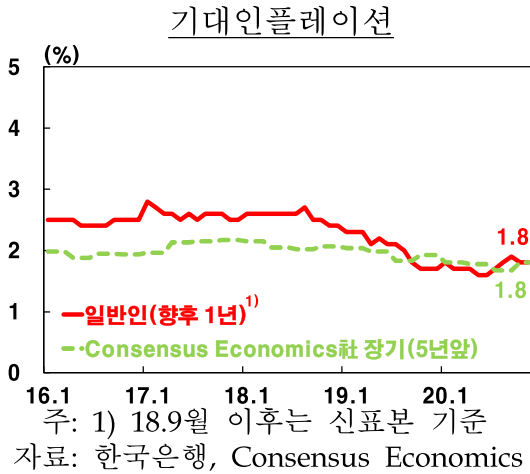
(해외요인)

- (국제원자재가격) 국제유가는 최근 40달러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비철금속 및 곡물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냄
 - 국제유가는 향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 공급여건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잠재
- (환율)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들어 빠르게 하락하여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하회



(국내요인)

- (국내수요) GDP갭률은 마이너스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기대물가)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향후 1년) 및 전문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5년앞)은 1%대 후반 수준에서 등락
- (노동비용) 명목임금은 국내경기와 기업 수익성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률이 다소 높아지겠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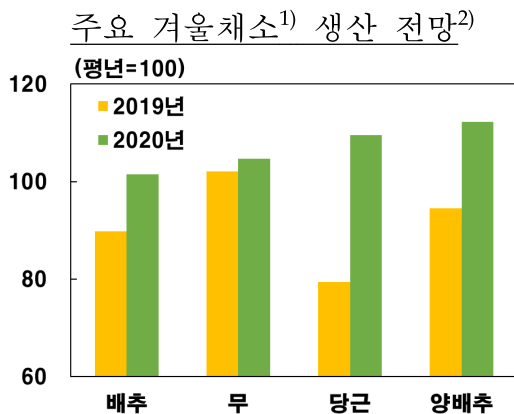
(기타요인)

□ (농축수산물)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채소류* 공급차질이 완화되면서 농산물가격 오름세가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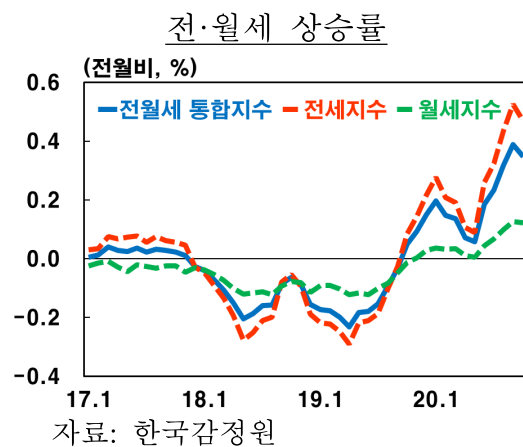
* 과실류는 저장량 감소의 영향으로 채소류에 비해 오름세 둔화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 축산물가격은 최근 다소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오름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

□ (집세) 최근 전·월세(신규계약 기준) 상승이 지속되면서 집세(CPI 기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 1) 주출하시기는 12월~5월
2) 평년은 극단치를 제외한 2015~19년 평균 기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부정책) 내년에는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이 축소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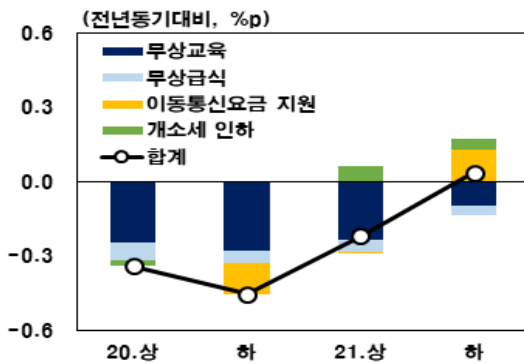
- 의료 관련 복지정책 강화 기조가 이어지겠으나, 교육·통신 관련 정부정책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금년중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의 물가하방압력 소멸, 이동통신요금 지원(20.4/4분기)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기인
- 금년중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20년말 종료 예정)의 기저효과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내년중 주요 공공요금 조정 계획

분류	내용
인상	수도 - 상하수도료 인상(충남 등, 1월)
	교육 - 고교납입금 무상화 확대(전북 등, 3월) - 무상급식 확대(서울·대구 등, 3월)
인하	의료 - 흉부 초음파 급여화(상반기 예정) - 척추 MRI 급여화(하반기 예정) - 심장 초음파 급여화(하반기 예정)

자료: 정부·지방자치단체 발표자료 및 자체 서베이

주요 정부정책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2) 전 망

- 향후 소비자물가는 국내경기가 개선되고 국제유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내년중에는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 축소, 최근의 전·월세 상승세 등도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중 0.5%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0%, 1.5%로 점차 높아질 전망
 -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도 금년중 0.3%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0%, 1.3%로 높아질 전망

물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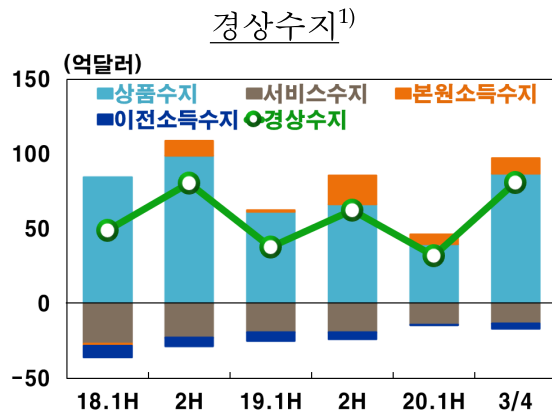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2021 ^{e)}		2022 ^{e)}	
	연간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소비자물가	0.4	0.6	0.5	0.5	0.7	1.2	1.0	1.5
식료품·에너지 제외	0.7	0.4	0.3	0.3	0.7	1.3	1.0	1.3
농산물·석유류 제외	0.9	0.6	0.7	0.7	0.8	1.2	1.0	1.3

-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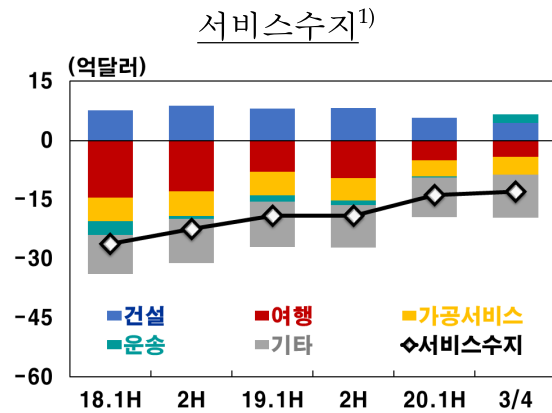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따른 경기 개선세 강화 ▪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개선세 약화 ▪ 환율 하락세 확대

4. 경상수지

- 금년중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 축소 등으로 흑자규모가 확대되었으나, 내년에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
- (상품수지) 금년중 지난해에 비해 흑자폭이 축소되고, 내년에도 유가 상승 등으로 흑자규모가 소폭 줄어들 전망
- (서비스수지) 금년중 여행·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



주: 1) 기간중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주: 1) 기간중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 금년과 내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각각 650억달러, 60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22년에는 580억달러로 예상

경상수지 전망¹⁾

	2019		2020		2021 ^{e)}		2022 ^{e)}	
	연간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경상수지	600	192	458	650	260	340	600	580
상품수지	769	240	500	740	365	365	730	725
수출(통관)	5,422	2,406	2,664	5,070	2,670	2,830	5,500	5,700
	(-10.4)	(-11.3)	(-1.7)	(-6.5)	(11.0)	(6.2)	(8.5)	(3.6)
수입(통관)	5,033	2,297	2,343	4,640	2,450	2,630	5,080	5,300
	(-6.0)	(-9.0)	(-6.6)	(-7.8)	(6.7)	(12.2)	(9.5)	(4.3)
서비스·본원·이전소득	-169	-48	-42	-90	-105	-25	-130	-145
서비스수지	-230	-84	-76	-160	-85	-95	-180	-210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Ⅲ. 주요 현안점검

1. 최근 제조업 경기 현황 및 평가

(1) 최근 제조업 경기 현황

□ 국내 실질 GDP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2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나 3/4분기 들어 반등

○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제조업 생산은 빠르게 회복

□ 제조업내 세부 업종별(산업활동동향 기준)로는 3/4분기중 반도체, 전자부품 등 IT부문과 자동차, 화학제품 등 대부분의 비IT 부문 생산이 큰 폭의 증가로 전환

▪ 다만 의복(-5.3%), 가죽·가방(-3.4%) 등 일부 소비재는 3/4분기중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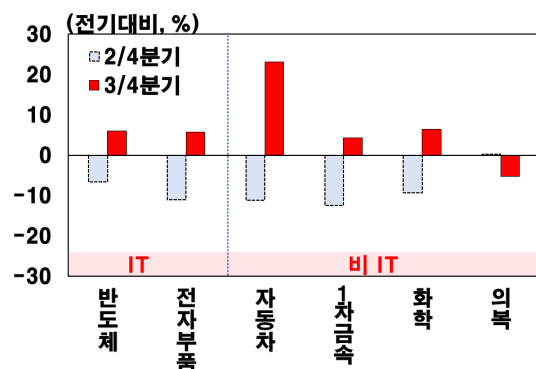
⇒ 최근 제조업 경기 회복의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점검

GDP 성장률

	(전기대비, %)			
	19.4/4	20.1/4	2/4	3/4
GDP	1.3	-1.3	-3.2	1.9
(제조업)	1.8	-1.0	-8.9	7.6
(서비스업)	1.3	-2.4	-0.9	0.7
(건설업)	3.7	0.2	-0.3	-5.5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제조업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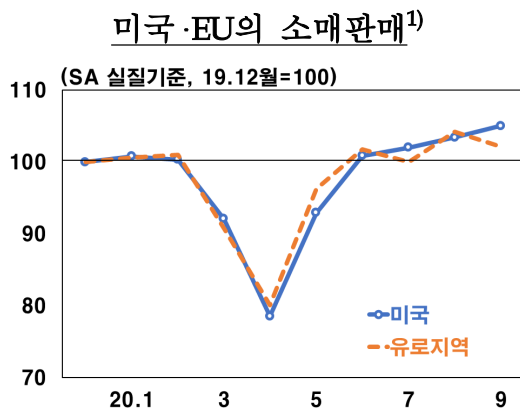
(2) 제조업 회복의 배경

(글로벌 수요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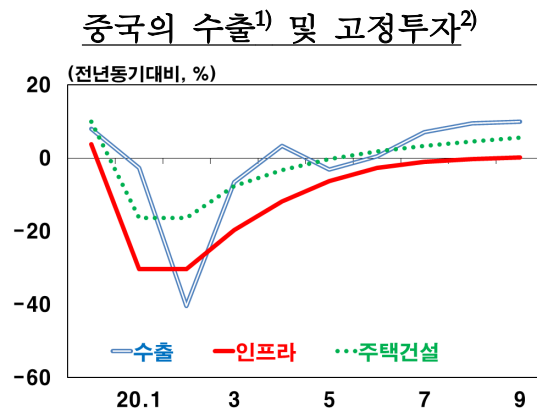
□ (현황)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 및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도 반등

○ 미국, EU의 경우 전례없는 규모의 가계소득 지원 정책, 이연수요 (pent-up demand) 등에 힘입어 재화소비가 빠르게 회복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코로나 진정에 따른 경제활동 조기 재개, 경기부양책 등으로 수출 및 고정투자가 성장을 견인



주: 1) EU는 자동차 제외
자료: Haver Analytics



주: 1) 통관수출 2) 누적투자기준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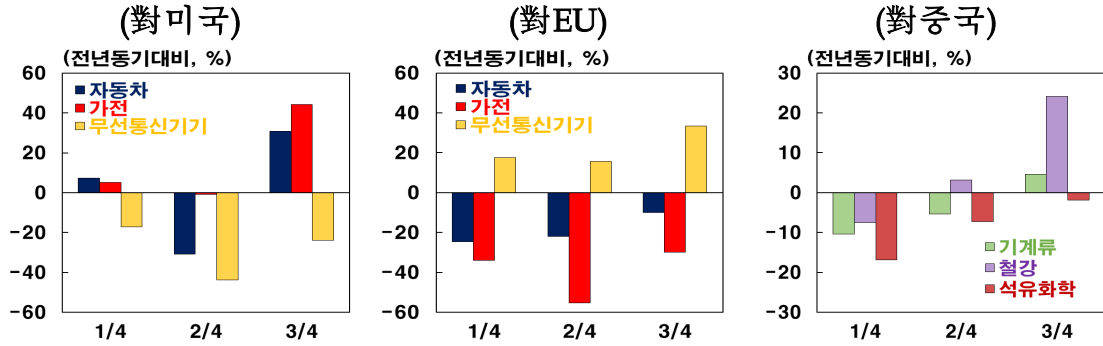
□ (국내 영향) 3/4분기중 對미국·EU 소비재 및 對중국 인프라 투자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반등

○ (자동차) 對미국 수출이 SUV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對EU 수출도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

○ (가전) 對미국 가전제품 수출이 재택근무 등 실내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컴퓨터, 냉장고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 (철강 및 기계) 對중국 수출의 경우 인프라 투자 관련 수요 증가 등으로 철강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기계류 수출도 증가 전환

주요 품목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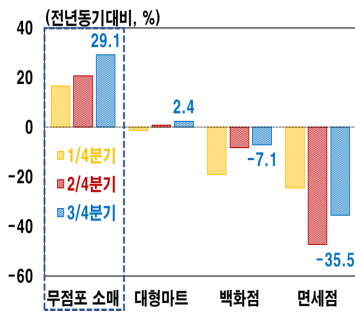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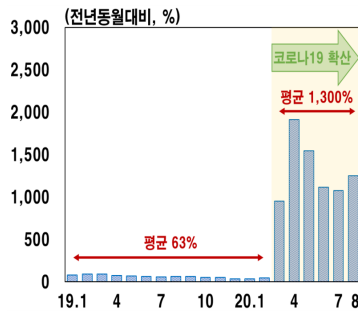
(비대면 수요 확대)

- (현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국들의 이동제한 조치로 대면활동은 감소하였으나 이를 대체하는 비대면 활동이 증가
 -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가운데 쇼핑, 엔터테인먼트, 의료, 교육 등의 소비활동이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대체
 - 이러한 소비자의 행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도 비대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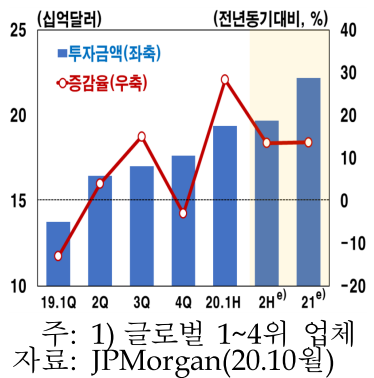
업태별 소매판매



줌(zoom) 이용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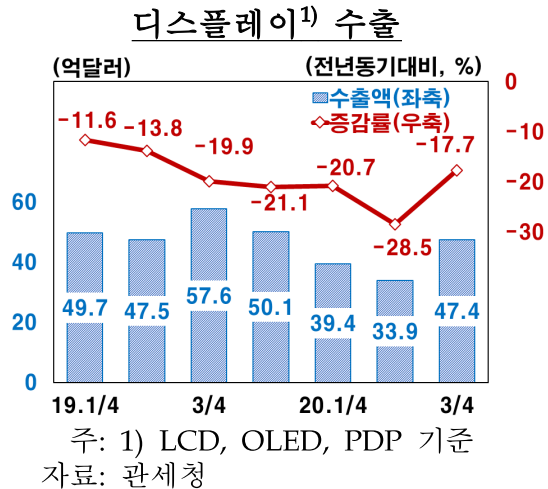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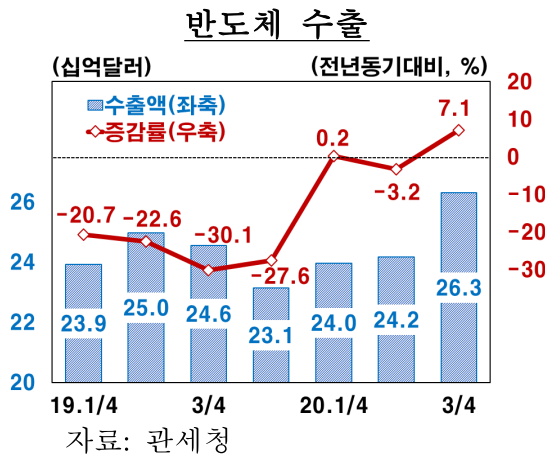
글로벌 클라우드업체¹⁾ 투자



- (국내 영향)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IT기기 수요 및 기업들의 관련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제조업 생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반도체) 코로나 확산 초기 반도체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한 서버·PC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꾸준히 증가
 - 이에 따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IT기업들은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투자를 지속
- (디스플레이) 신규 스마트폰 출시, TV·PC 등의 수요 증가*로 디스플레이 수출의 감소폭(전년동기대비)이 축소

* 9월 TV용 LCD 가격이 연초(20.1월) 대비 20~60% 상승(Om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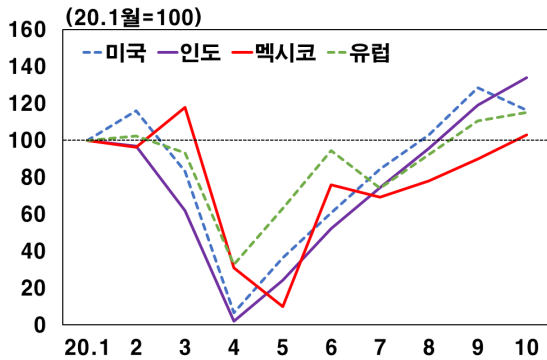


(해외생산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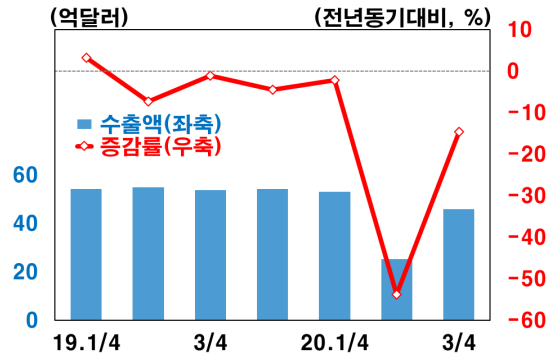
- (현황) 6월 이후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우리 기업의 해외공장 가동이 정상화
 - 4~5월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주요 해외 생산거점 (미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의 공장 가동이 중단
 - 이후에도 확진자 발생, 부품수급 차질 등이 일부 공장의 조업에 영향을 주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해외공장이 재가동
- (국내 영향)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정상화는 무통관수출 및 관련 부품 수출 등의 회복 요인으로 작용

- 2/4분기중 크게 위축되었던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등의 해외 생산이 3/4분기 들어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생산 공장에 대한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도 회복

국가별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출하



자동차부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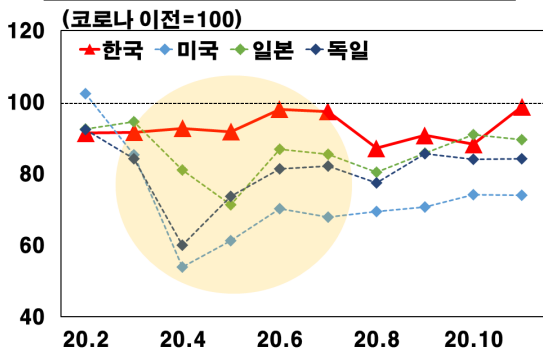


(국내 생산 차질 최소화)

- (현황 및 국내영향)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내 제조업 생산차질이 최소화
 - 방역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충격을 완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생산차질을 최소화함으로써 3/4분기중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및 글로벌 이연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
 - 또한 보건 등과 관련된 일부 국산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도 수출 확대에 기여

* 진단키트, 위생·청정 가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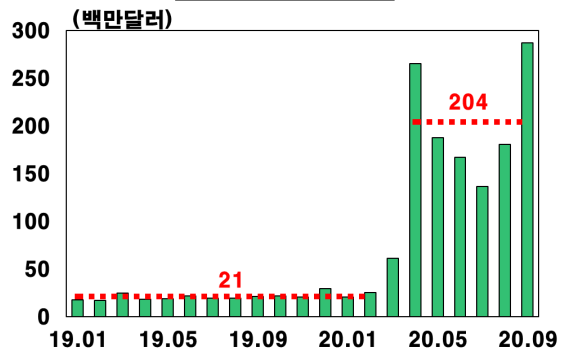
주요국의 직장밀집지역 이동성¹⁾



주: 1) 직장밀집지역 방문횟수와 체류 시간을 코로나 이전과 비교

자료: Google Mo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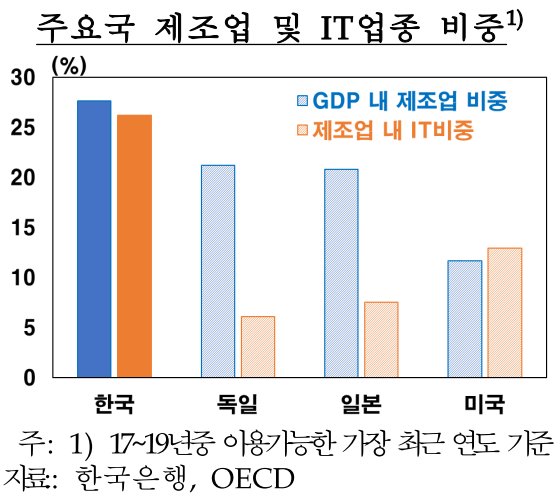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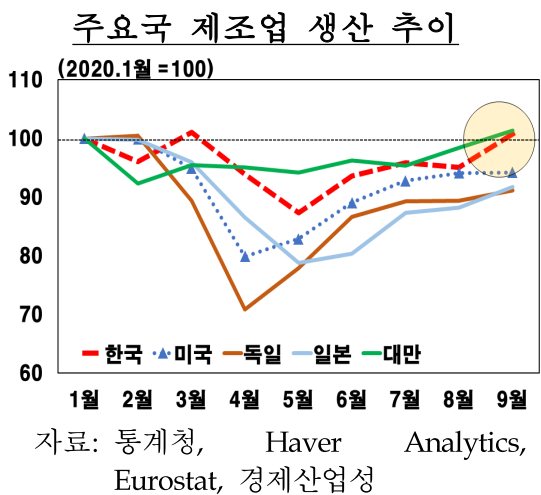
진단시약 수출



자료: 관세청

(3) 종합평가

- 국내 제조업 경기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둔화되었다가 3/4분기 들어 빠르게 회복
 -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 경기의 둔화 정도가 작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도 빠른 모습
 - 이는 IT부문의 경쟁력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가 비대면 활동 활성화, 재화 중심의 소비 증가와 같은 코로나19 이후의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
 - 또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생산차질 최소화 등을 통해 제조업 경기 회복에 기여
- 향후 국내 제조업은 주요국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나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IT업종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비IT 업종도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부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 문	부 서	담 당 자
작성총괄	조사국	이지호 김대용
I. 대내외 여건 점검		
1. 세계경제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신흥국 국제유가 2. 국내경제 재정지출 부동산시장 <주요 전망 전제치>	조사국	박병걸 오강현 김하은 이규환 광법준 주욱 이정기 송효진 민은지 오강현 안준영 박종욱 이진기 조병수 주세준 김대용 이채현
II. 거시경제 전망		
1. 경제성장 (1) 민간소비 (2) 설비투자 (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 건설투자 (5) 상품수출 (6) GDP성장률 2. 고용 3. 물가 4. 경상수지	조사국	원지환 서정원 임상은 김상훈 김주완 김상훈 김주완 임준혁 고종석 이흥후 이윤정 김대용 신동주 김형진 황수빈 유민정 이승철 박상우 이병록 노현주 남현우 강달현 이균건 박 진
III. 주요 현안점검		
1. 최근 제조업 경기 현황 및 평가	조사국	권성택 박재현